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광주양궁,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



2019년 올림픽라운드로 열린 제31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에서 16강에 오른 선수들이 과녁을 정조준하는 모습.

##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 열전 돌입

초등부터 실업팀까지 200여명 참가 기량 겨뤘  
선·후배 우의 다지고, '멘토·멘티' 추억 만들고  
전국 최강 광주양궁 자양분...국가대표 산실로

'광주 양궁'을 빛낸 스타들과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32회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가 1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양궁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성진·염주·문산·두암·유춘초 등 남녀 초등부 6개 팀, 동명·윤리·광주체육중(남여) 등 중등부 4개 팀, 고등부 광주체고(남여), 대학부 조선대(남)·광주여대, 실업팀 광주시체육회(남)·광주시청(여)·광주은행(여) 등 선

수·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해 싱글라운드로 진행된다. 1988년 광주시양궁협회가 창립된 이후 매년 열렸던 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올해 32회 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양궁협회장기 종별대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양궁 발전에 큰 기여를 마련한 유서 깊은 대회로 명실상부 국가대표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 기보배(광주시청)를 비롯해 2016리우올

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광주여대 졸업·광주은행), 2020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 등이 대회를 통해 기량과 꿈을 키웠다. 또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용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현정도 광주 출신으로 광주시양궁협회장기가 배출한 스타들이다. 특히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양궁 꿈나무들이 같은 장소에서 양궁으로 소통하고, 멘토와 멘티로서의 유대감을 키워가며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대회로 그 의미가 크다. 나아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전국남녀회장기 초등양궁대회와 1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둔 광주선수단의 마지막 실전대회로 경기력 점검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최미선(광주은행)과 안산(광주여대)은 13일부터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리는 2023 현대월드컵 3차대회에 출전한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은 "32년 전통의 협회장기는 전 종별 선수들이 모여 실력도 쌓고 선·후배 양궁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뜻 깊은 대회"라며 "국가대표 산실인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두가 최고의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 '장애를 넘어, 스포츠는 하나다'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소통 간담회

광주시체육회가 광주시장에인체육회와 광주체육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2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제37회 광주시민대상 '체육대상'을 수상한 광주시청장애인탁

구팀을 축하하고,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광주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단과 지도자를 격려했다. 전 회장은 "광주체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광주체육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합심해 150만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서 선전을 펼친 광주수영선수단.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銀3·銅4

전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스포츠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인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북 익산시 일원에서 열렸다. 파크골프, 볼링 등 4개 종목 32명의 참가한 광주선수단은 스크린골프, 수영 등에서 7개의 메달(은3, 동4)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스크린골프 개인전에 나선 허도경은 대회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값진 은

메달을 따냈으며, 수영 배영 50m 김주현도 1위를 아쉽게 놓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발차기 50m 2인조에 출전한 김주현·안도준 조는 은메달을, 곡건우·나도경 조는 동메달을 수확했다. 수영 자유형 100m에 출전한 박옥, 계영 100m 단체전에 나선 나태경·안도준·박옥·홍한별, 혼계영 200m 단체전에 나선 김주현·곡건우·박옥·홍한별은 각각 동메달을 합작했다. /박희중기자



지난 10일 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3 AI 페퍼스X페퍼저축은행 플로깅'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 '연고지 광주를 맑고 푸르게'

AI 페퍼스, 시민·팬들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 성료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배구단이 지난 10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2023 AI 페퍼스X페퍼저축은행 플로깅'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3 AI페퍼스X페퍼저축은행 플로깅에는 AI 페퍼스 주장 이한비를 포함한 12명의 선수, 장애투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 겸 AI 페퍼스 구단주, SNS 채널을 통해 모집한 AI 페퍼스 팬과 광주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페퍼저축은행이 환경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환경을 정화하

고, 연고지인 광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기위해 마련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생분해 봉투, 집게, 장갑으로 구성된 플로깅 키트를 제공받은 후 약 1km에 달하는 공원 코스를 돌며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미니 게임, 선수단과의 포토타임, OX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즐겼다. AI페퍼스 구단은 참가자 전원에게 친환경 실천을 위한 에코백과 텀블러, 커피 상품권 등의 선물을 증정했다. /박희중기자

## '아름다운 도전'...단단한 실리축구로 '4강 쾌거'

U-20월드컵 결산

무관심과 부상 등 갖은 악재 속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도전을 시작한 김은중호가 기대를 훌쩍 넘어선 4위의 성적을 내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혔다. 김은중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12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이스라엘에 1-3으로 져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비록 입상에 실패했지만, 준수승한 2019년 폴란드 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4강의 성적을 낸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애초 김은중호를 향한 기대치는 매우 낮았다.

김은중호에는 축구 팬들이 일만만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해외파 김용학(포르티모넨스), 유일하게 K리그에서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잡던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정도를 제외하면 '무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강인(마요르카)이라는 특출한 선수가 시선을 집중시켰던 2019년 폴란드 대회 때와는 분위기가 정반대였다.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까지 받은 김은중호는 좌절하지 않았다. 무관심을 양분 삼아 더 단단한 팀으로 변화해나갔다. 부상도 김은중호를 괴롭혔다.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미드필더 이현주와 올 초 U-20아시안컵에서 활약한 공격수 성진영(고려대)이 부상으로 전역에서 이탈했다. 배준호도 근육 부상을 당해 조별리



"잘 싸웠다, 값진 4위였다" 12일 열린 2023 U-20 월드컵 3·4위전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기에서 이승원이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스타 없는 '골짜기 세대'...대회 직전 줄부상 악재 팀워크로 극복 강고한 조직력·순도 높은 세트피스 앞세워 사상 2번째 호성적

그에서 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속에 대회를 시작한 김은중호는 승승장구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랑스를 2-1로 물리치는 '이변'을 일으킨 끝에 조 2위로 16강에 올랐다. 16강전에서 에콰도르에 3-2,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와 연장전 끝에 1-0으로 승리하며 준결승까지 내달렸다. 이탈리아와 준결승에서는 아깝게 1-2로 패했다. 김은중 감독의 단단한 실리축구가 빛났다. 상시로 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을 만드는 대표팀에서는 찾아보기 어

려운 수준의 조직력을 보여줬다. 주 득점 루트인 세트피스와 역습의 완성도도 높았다. 특히 김은중호는 이번 대회에서 총 10골을 넣었는데, 그중 6골을 세트피스로 만들었다. 이승원은 3골 4도움을 올려 2019년의 이강인(2골 4도움·마요르카)을 넘어서는 맹활약을 펼쳤고, 3번째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브론즈볼까지 받았다. 예상 밖 선전을 펼친 김은중호가 '체력 문제'에 발목이 잡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은중호 21명의 '리틀 태극전사'들



(U-20) 월드컵 시상식에서 이승원이 브론즈볼을 수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르는, 값진 경험을 했다. 나아가 A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진짜 태극전사'가 되려면 프로 무대에 자리 잡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를 해내는 건 각자의 몫이다. /연합뉴스